



이호국 '중심사 가로수길'



응웬 떼 주이 'Art Street'

레지던시 작가들 무술년 결실 선보인다

한해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다. 지역의 미술관들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가들은 공간에 머물며 작업을 이어 갔고, 그 결과물을 미술 애호가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윤미술관=올해 개관 10년을 맞은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올해 처음으로 흥림장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술관이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점에서 착안, 무등산의 자연과 지역의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쓴 국윤미술관은 레지던시 작가들과 함께 '무등산'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부터 '무등산에 예술의 무지개를 띄워요'를 주제로 열린 레지던시에는 8명이 참여했다. 참여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에서 머물면서 무등산 일대를 함께 탐방, 소재와 영감을 얻고 작가간의 협업을 모색했다. 또 주제 세미나에도 참여했다. 2명씩 짝을 이뤄 전시회를 진행했던 미술관은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가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전을 열고 결과물을 발표한다.

국윤미술관 무등산 주재 내달 31일까지 은암미술관 17일까지 4개국 작가전

이호국 작가는 무등산 아래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파스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으며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화 작가는 무등산의 산세를 신문지 필라주 기법으로 형광등 패널 위에 표현한 작품을 발표했다. 박수만 작가는 시민연계프로그램으로 천혜경로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담은 작품을 출품했다. 그밖에 박성안·윤준영·설박·김종규·전지은 작가가 모두 2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062-232-7335.

◇은암미술관=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등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진 4인의 작가들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전시회 제목은 '그들의 오늘을 말하다'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뿌리를 가진 작가

들은 다양한 형식의 조형 언어를 통해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다.

중국 조선폭 3세인 리동인은 경계에 선 소수자로서 이중 신분에 대한 갈등,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파도' 연작에서는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세계'과 '나'를 발견한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거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온 응웬 떼 주이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광주를 찾았고 이번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한 예술의 거리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일본 도쿄 출생으로, 유년 시절을 후쿠시마에서 보낸 아키라 츠보이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후,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을 제단화 형식으로 고발하며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박 건은 미니 어저로 우리 시대의 한 장면을 축소해 보여준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앙** 12월호

브라보 백세시대, 인생 2막이 아름답다

구명가게 그리는 이미경 작가
전국 해님이·해돋이 명소



길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키앙'은 12월 송년호 특집으로 '브라보 백세시대, 인생 2막이 아름답다'를 다뤘다.

'브라보 백세시대'는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못 이룬 꿈을 찾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 작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댄스 지도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살려 봉사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백세 시대, 누구나 거쳐야 할 인생의 길을 모색한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사라져가는 구명가게를 펜화로 담은 이미경 작가다. 이미경 작가는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구명가게'를 20여 년째 펜화로 그리고 있다. 작가의 그림을 통해 구명가게는 애뜻하면서도 따뜻한 대상으로 되살아난다. 작가는 "소소한 것들을 아끼고, 보존하고, 간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겨울여행의 백미는 해님이·해맞이 여행이다. 낙조가 아름다운 진도 세방마을과 영광 백수해안도로 등에는 매년 관광객이 몰린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담양 관방제림과 무등산, 화순 만연사의 설경이 최고다. 보성과 순천의 빛축제도 겨울 여행 목록에 빠질 수 없다. 광주·전남 겨울여행지를 소개한다.

'해남도백리지'의 여정은 땅끝 해남이다. 한반도의 땅끝이자 시작인 해남은 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한다. 매년 국토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땅끝마을의 해남이와 일출을 보며 의지를 다진다. 달마산에 조성된 '달마고도'나 녹우당 비자나무 숲길을 걸으며 묵은 숨을 뽏고 새 숨을 호흡하기도 한다. 2018년의

끝자락, 땅끝 해남의 겨울 매력을 찾아 떠나보자.

2018 지역문화계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올 한 해 광주·전남 문화계에는 굵직한 행사가 많았다. 세계적인 전시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을 만났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첫 선을 보였다.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음악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고 문학계 역시 문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다수의 창작집이 발간됐다.

이외에도 12월 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소식을 전하고 '영원의 세계를 노래한 구도시인의 집' 구상문학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참여했던 KIA 타이거즈 투수 코치 서재응과의 인터뷰도 실었다.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겨울도시' 핀란드 로바니에미, 반고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들과 이웃하고 있는 뮤지엄광장의 '네델란드 국립미술관', '책방별곡'의 마지막 코스인 뒤셀도르프 '마이어세 드로스테', 런던 '헤이우드 힐', 파리 '세익스피어 & 컴퍼니' 서점 이야기 등 지면으로 만나는 세계여행도 흥미롭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전남순회문화포럼 내일 해남 녹우당서

광주전남작가회의가 남도문학을 3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전남순회문화포럼 마지막 행사 '다도해권문학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해남 녹우당에 개최된다.

문체부와 전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남지역순회문화포럼은 남도문학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토대로 문학콘텐츠 개발 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다도해권문학포럼'은 앞서 진행된 섬진강권문학포럼, 영산강권포럼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해남 녹우당에서 문학강연, 담소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식전행사로 녹우당 본채 산책과 다담이 예정돼 있고 한승원 작가의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지역별 문학현황과 연대방안, 문학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고산, 한승원 등 남도작가들의 문학작품을 음악작품으로 형상화한 '남도문학을 호명하는 시 노래공연'과 남도관소리도 펼쳐진다. 문의 062-523-7830, 010-2790-9838.

/박성천 기자 skypark@

소암 현증화 선생 추모 제자들의 서예전

내달 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소암(素菴) 현증화(1907~1997) 선생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문자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담긴 그의 작품은 많은 후학들에게 모범이 된다. 제주 출신인 그는 1968년 의재 허백련 선생을 방문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광주의 무진서예원, 소현서예원 등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교통 편이 좋지 않던 시절 광주와 목포를 방문하려면 여덟번의 대중 교통을 갈아 타야했지만 1989년 83세에 가르침을 멈출 때까지 정성을 다해 제자들을 지도했다.

소암 선생 21주기를 기념하는 '소암 현증화 선생 추모 사승(師承)전이 오는 12월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광주 소속회(素齋會) 회원들이 사승의 업적을 기려 마련한 전시다.

제주 서귀포 소암기념관에서는 매년 추모전이 열려왔고,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추모전이 열린다. 전시에는 '팔곡병(八曲屏)' 등 소암 선생의 한문·한글 서예 작품과 함께 강원병·고상구·김경호·김창희·류봉자·백옥자·정인숙·윤미란 등 60여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개막식 12월 3일 오후 5시. 문의 062-262-60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3주년, 오늘 지역 상생 토론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3주년을 맞아 지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생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포럼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시민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전당과 지역, 그리고 시민'을 주제로 지역과의 협력,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이 '문화전당과 지역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영은 광주에총 사무처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방안들을 제시한다.

강수훈 (주)스토리박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전당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시민 등을 초청한다. 문의 062-601-4467.

/박성천 기자 skypark@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메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